

오토시 신사

오토시 신사는 718년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며, 현재의 본전은 1690년에 건립되었습니다. 모시고 있는 신은 오토시노오카미, 이시쓰쿠리노오카미, 도요타마히메노미코토입니다. 오토시노오카미는 시간의 흐름을 관장함과 더불어 농경과 오곡 풍양의 신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또한 액을 막아주는 신으로서도 숭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시쓰쿠리노오카미는 대대로 석관(石棺) 등을 제작해온 호족의 조상신으로 1세기, 일본의 제 11대 천황이었던 스이닌 천황의 황후가 승하했을 때에 석관을 헌상하여 천황으로부터 '이시쓰쿠리 오무라지'라는 매우 명예로운 관위를 하사받았다고 합니다. 바다 신의 딸인 도요타마히메노미코토는 일본의 초대 천황인 진무 천황의 조모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가을 축제와 경내

오토시 신사의 가을 축제는 10월 세 번째 일요일에 열리며, 같은 씨족신을 모시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거나 다양한 공물을 봉납합니다. 에도 시대(1603~1867년) 중기 이후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노가쿠(일본의 가면 음악극)의 곤코류(노가쿠의 한 유파) 종가(宗家)가 예로부터 전해지는 신성한 상연작 '오키나'를 봉납해왔습니다. 최근에는 그에 이어 '가야노모리'라는 또 하나의 우타이(노가쿠의 가사, 또는 가사에 곡을 붙여 노래하는 것)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경내에 일찍이 침엽수인 비자나무(일본어로는 가야)가 무성했던 데서 옛날부터 '가야노모리'(비자나무 숲)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옛날, 경내의 비자나무 씨앗에서 짠 기름은 등불의 연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지금도 경내에 몇 그루의 비자나무가 보이며, 신사의 옛 모습을 되찾기 위해 묘목이 심어져 있습니다.